

풀리지 않는 고민,
철강으로 함께 풀자

2026 HCORE Solution 파트너십 공모

건설 산업의 현업·현장에서 해결 또는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제시하고, 아이디어 도출부터 수주까지 함께 할 파트너사를 공모합니다.

2026. 5. 11. (월) — 6. 30. (금)

지원대상

건설 산업 분야의 철강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체
학·협회 및 연구기관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 가능합니다.
(단, 개인 자격으로 참여 불가)
※ 철강 제품 : 철근, 형강, 후판, 열연, 냉연, 특수강, 슬래그(부산물)

공모분야

건축 및 토목 분야 및 철강을 사용하는 건설 전 분야
당사는 데이터센터 및 전력계통 인프라에 높은 관심을
두고 있습니다

접수방법

제출서류 : "현장 Talk" 작성본 1부
첨부 양식 참조하여, 해결 또는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중심으로
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
E-mail 접수처 : hcore@hyundai-steel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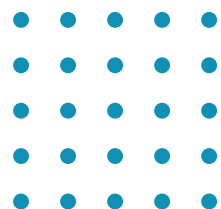
문의사항

담당자 Tel. 031-510-2476 / 031-510-2465
상세 내용은 첨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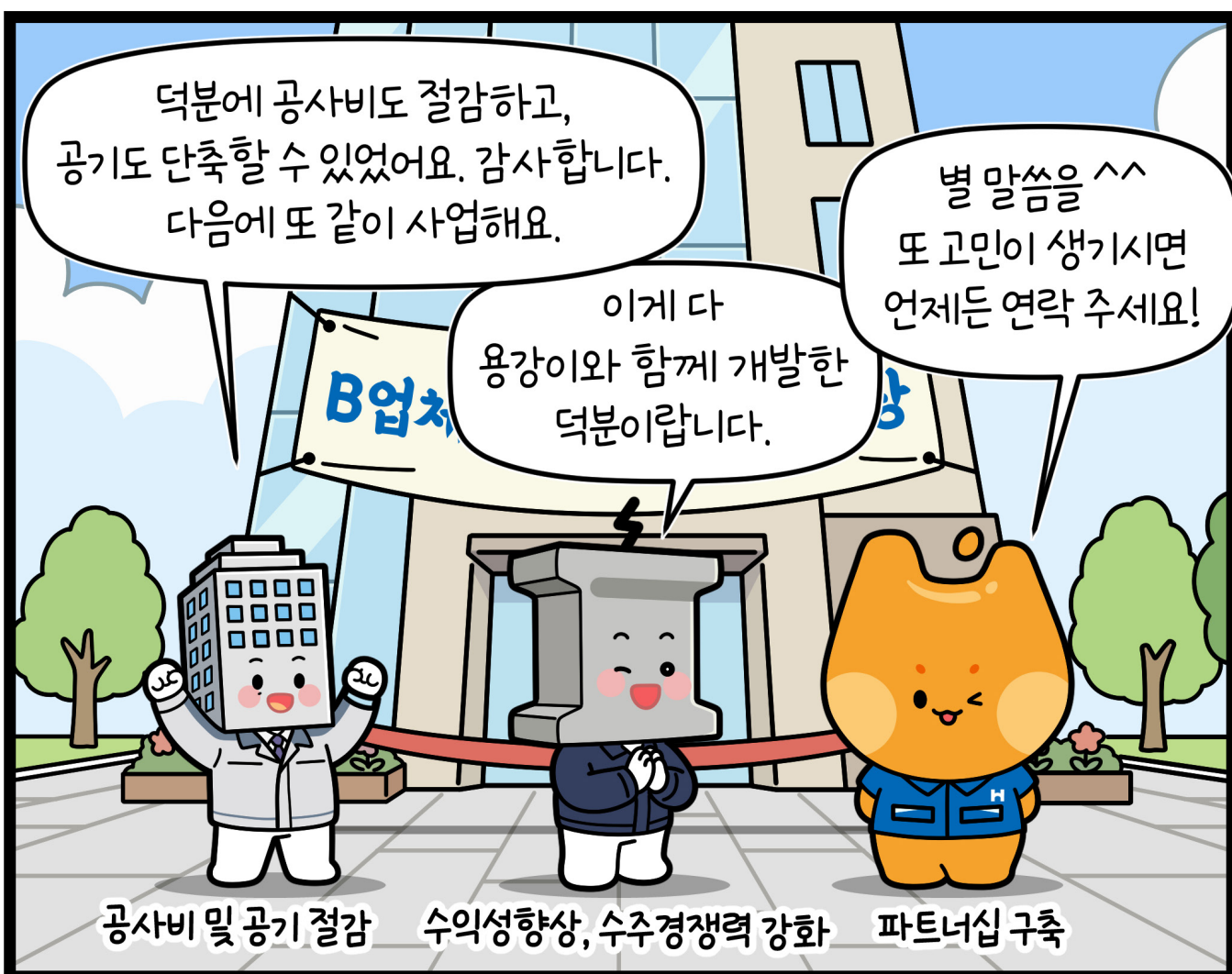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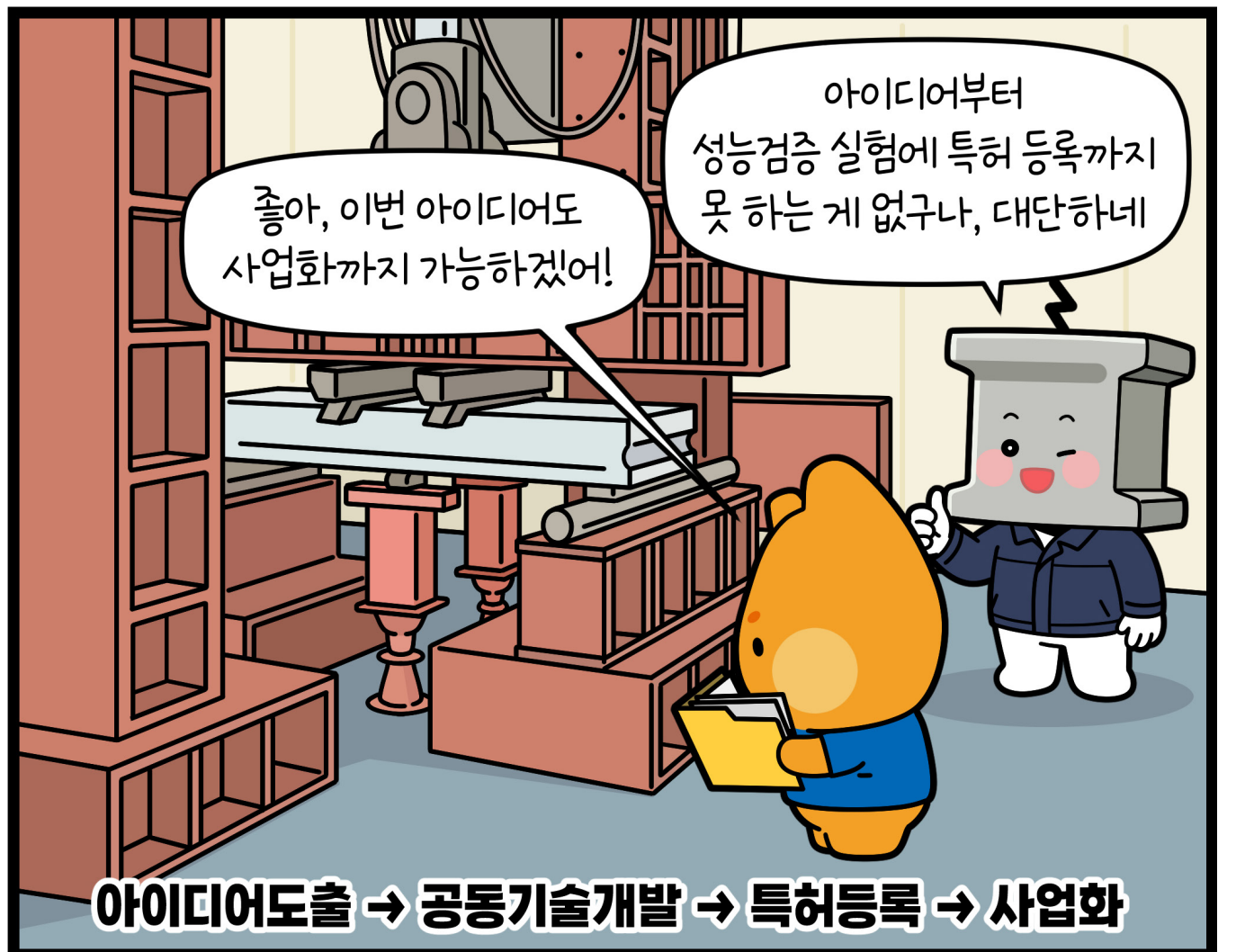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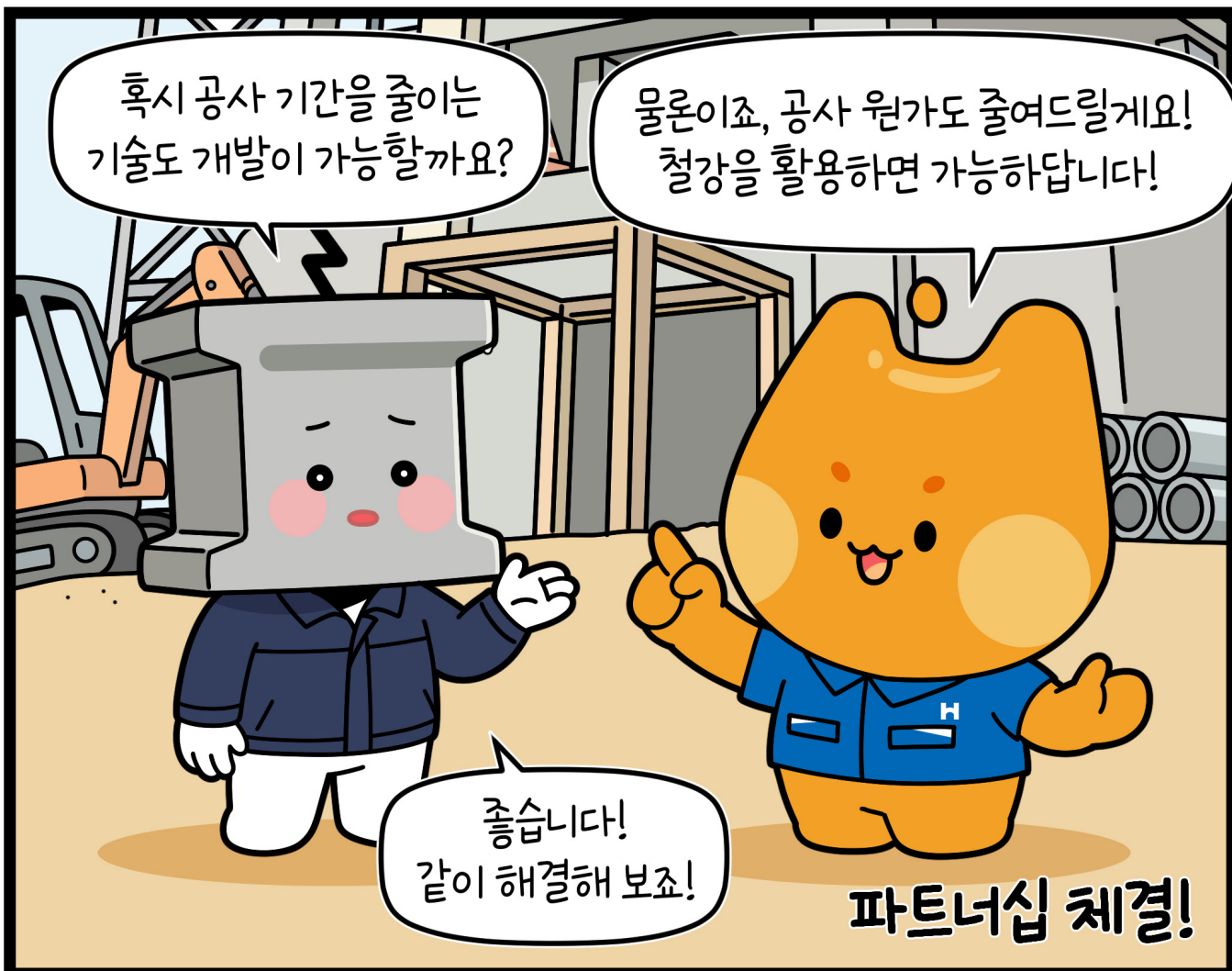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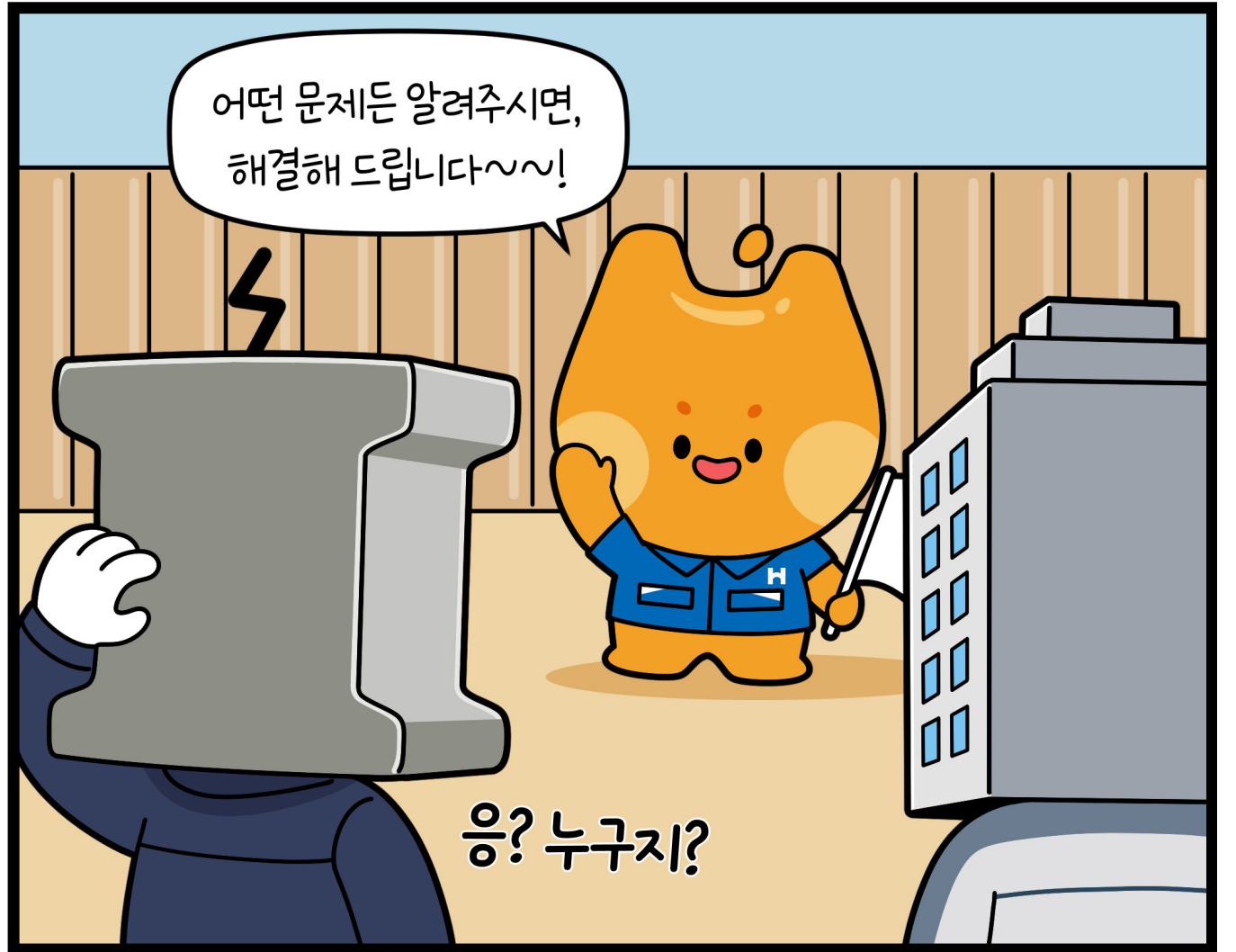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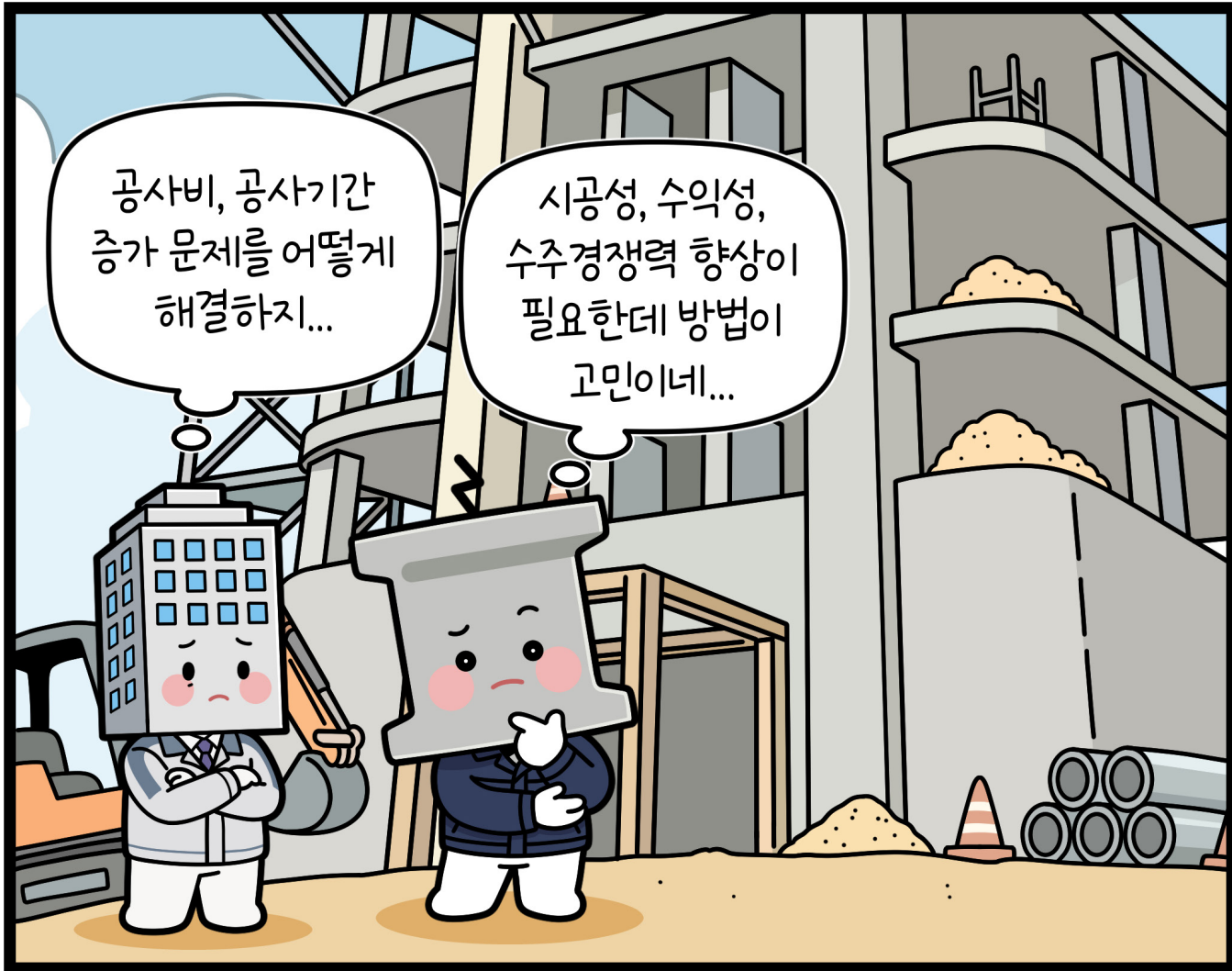


공고문 및 작성양식

※ HCore 홈페이지 (<https://ae.hyundai-steel.com/dist/main>)
메뉴 SUPPORT > Reference Data에서도 다운로드 가능



용강이와 함께하는 현장 문제 해결기



Q&A

Q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?

A 건축 및 토목 산업 분야의 철강 제품을 활용하는 모든 기업은 지원 가능합니다. (단, 개인 자격은 지원 불가)
당사는 데이터센터 및 전력계통 인프라 사업 분야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.

Q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요?

A 제안서는 첨부된 샘플을 참고하여 자유 양식으로 작성 가능합니다. 해결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 위주로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
※ 문의처 : E-mail. hcore@hyundai-steel.com/ Tel. 031-510-2465, 2476

Q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나요?

A 공식지원 접수는 **2026년 6월 30일**에 마감됩니다.
선정 결과는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.
※ 공식 접수 마감 이후에도 상시로 접수 받고 있으니 좋은 제안 부탁드립니다.

Q 선정 시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?

A 아이디어 도출부터 개선, 특허 검토·등록, 초도 수주에 이르기까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 과정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.



2026 HCORE Solution 파트너십 현장 Talk (양식)

작성가이드



- 하기 양식 참조하되 자유롭게 작성 가능(특정 양식 없음)
- 현업·현장에서 당면한 고민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핵심만 작성(상세한 내용은 직접 찾아뵙고 듣겠습니다.)
- 그림, 사진, 표 및 도식화 등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능

현장 Talk

해결 문제 및 고민						
사업 분야				기술·제품 분야		
적용 철강 제품 (※ 복수선택 가능)	<input type="checkbox"/> 형강	<input type="checkbox"/> 철근	<input type="checkbox"/> 후판	<input type="checkbox"/> 열연	<input type="checkbox"/> 냉연	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강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산물(슬래그)
기업·기관명				공동 참여 기업·기관		
담당자 (성함/직급)				담당자 연락처 및 E-mail		

1. 기업 현황



작성 Tip

- 업체 현황 (매출, 인력, 조직 등)
- 주요 사업 분야 및 프로젝트 유형
- 최근 1~3년 철강 사용 현황
- 철강 조달 방식 (직접구매, 가공사 통한 구매, 원청 또는 관급 지급자재)

2. 현업·현장 문제 정의



작성 Tip

- 해결 또는 개선이 필요한 문제 (문제가 발생하는 공종, 구조물, 제품 등)
- 구체적인 문제 내용 (원가상승, 공기지연, 시공성 저하, 품질/안전 등)
- 기존 대응(공법, 기술, 제품 등) 및 한계점